

새해 가정 예배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 인도해도 됩니다.)

부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합시다.) 인 도 자

“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
게서 온다.”(시 121:1-2, 새번역)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 설날을 맞아 우리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자리에 모였습
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소망의 해를 맞이하게 하
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의 영적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
심을 노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 송 28장 다 같 이

1.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기 도 가 족 중

- 지난 한 해 동안 가족의 평안과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
-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게 하심 감사
- 새해에 온 가족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도록 간구
- 주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구

성경봉독 창세기 12:1~3 인 도 자

- ¹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 ²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 ³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
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 씀 약속을 따라 복의 통로로 걷는 가정 인 도 자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우리 가
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올 한 해 나아갈 방
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떠남'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는 땅과 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안락함, 과거의 실패, 혹
은 지난해의 아쉬움과 상처로부터 떠나라는 부르심입니다.

"보여 줄 땅"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밭을 내딛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가족도 오늘, 옛 습관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복 그 자체'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린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얻고, 우리 가족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샘물이 되길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친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해하려는 자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여호와 이레), 우리 가정을 대적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단순히 '잘 사는 가정'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기반을 둘 때, 우리 가정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른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란하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창조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가정이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아래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 301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 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의기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가족들이 즐겨 부르는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 교회 홈페이지 (www.yedarm.or.kr)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가정예배)

 **예담교회**

02832

상복구 동소문로 47-23

대표 926-0691, FAX 923-6818